

중국산 AI의 부상과 견제 강화하는 미국



Hana China Weekly | 2026.7.31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중국 신규 로봇 수입 금지

- 7/28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신규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발표. 이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규 로봇 및 인버터 모델에만 적용되나 FCC는 이미 판매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 취소 권한을 갖고 있음. 금번 제재는 중국발 공급망 교란, 데이터 탈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 AI 공급망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약 20%를 보유한 유니트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유니트리는 최근 미 국방부의 중국 군 관련 기업 목록에도 포함된 바 있음. 인버터 분야에서는 양광전력(sungrow)과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규제 영향권에 포함.

CXMT(688825.SH): A주 시가총액 1위 등극, 9월 STAR50 지수 편입 유력한 상황

- 7/27 커창반 상장 첫날 공모가(8.66위안) 대비 최대 +535% 급등하며 장중 최고 55.03위안을 기록, 종가 기준 +466% 급등한 49위안으로 마감. 시가총액 3.28조 위안(약 4,846억달러)으로 인텔(약 4,640억달러)을 상회하며 A주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는 역사적 데뷔를 기록.
- 과창판 대표 지수인 STAR50 편입은 9월이 유력한 상황. STAR50 지수 9월 정기 리밸런싱의 편입·편출 명단 발표는 8월 말, 패시브 자금 증가 리밸런싱은 9월 11일, 변경 지수 적용일은 9월 14일로 예상. CXMT는 과창판 일평균 시가총액 상위 3위이자 상장 1개월 초과 요건을 충족해, 지수 전문가위원회 특별 승인을 통한 조기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다만 상장 초기 높은 주가 변동성과 제한된 유통물량(유통가능 비율 6.7%)에도 위원회가 특별 편입을 승인할지가 관건. 9월 편입이 불발되면 12월 14일 정기 조정에서 편입될 전망.

Moonshot AI(비상장): 기업가치 350억달러까지 급등, 연내 홍콩 상장 예정

- 7/29 블룸버그에 따르면, Moonshot AI가 시리즈 F 라운드에서 35억달러를 조달해 기업가치 350억달러를 확보. 당초 목표였던 10억~20억달러를 크게 웃돈 규모로, 지난 5월 200억달러였던 밸류에이션이 약 8개월 만에 급등. 딥시크에도 투자한 국책펀드 국가시산업투자기금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도 참여. 최근 실리콘밸리에 파장을 일으킨 Kimi K3 흥행이 배경으로, Moonshot은 프리머니 500억달러로 추가 라운드를 추진하며 연내 홍콩 상장을 준비 중. 3년 전 3억달러였던 몸값이 35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진영의 부상이 자본시장 평가로 확인되는 모습.
- 7/27 Kimi K3 모델 가중치를 허깅페이스에 공개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2.8조 파라미터로 현재 공개된 가중치 모델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Kimi K3 출시 이후 일평균 매출이 최소 6배 급증했다. 한편 7월 글로벌 LLM 호출량 상위 TOP 5를 중국 기업들이 석권했으며 Kimi K3 가중치 오픈소스 공개로 경쟁사 주가가 동반 급락. Z.ai(2513.HK) 18.7%, 미니맥스(0100.HK)는 14.1% 하락 마감.

AI/테크

Z.ai(2513.HK): GLM-5.2, 보안사고 해결로 가치 부각

- 7/24 허깅페이스가 OpenAI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미국 상용 AI 모델들이 안전장치(가드레일)로 인해 악성 로그 분석을 거부하자 Z.ai의 오픈소스 모델 GLM-5.2를 자체 서버에 직접 설치해 포렌식 분석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7/24 Z.ai 주가는 +5.6% 강세 마감. 벤치마크나 자사 홍보가 아닌 실제 보안 사고 현장에서 글로벌 최대 AI 개발자 플랫폼이 GLM-5.2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력의 실전 검증으로 받아들여지며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Z.ai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부각. 다만 가드레일이 없는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특성이 악용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규제 논의가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적 흐름도 동시에 전개되는 점에 주목.

딥시크(비상장): 창업자 발언 녹취록 유출

- 7/26 SCMP에 따르면 5/20 폐쇄형 투자자 미팅(약 3시간 44분)에서 나온 량원평 창업자의 발언 녹취록이 유출. 딥시크 측은 진위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나 녹취록 내용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 핵심 발언은 ①AGI 단일 목표: "제품은 AGI로 가는 과정의 부산물일 뿐, 다음 슈퍼앱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②저마진 구조를 핵심 전략으로: API 가격 책정 원칙은 "10개월 내 장비 비용 회수"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합리적 이익만 추구, ③오픈소스 전략: "오픈소스는 이익을 나누는 것, 장기적으로 AGI 달성 확률을 높인다", ④중미 AI 격차: "차이는 재능이 아닌 컴퓨팅 자원에 있다. 국산 칩 생태계가 1년 내 돌파구를 마련할 것", ⑤업계 전망: "중국 기초 모델 기업이 너무 많고 수렴은 불가피하다. 최종적으로 소수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로 수렴될 것". 글로벌 AI 창업자들이 밸류에이션과 이익 극대화를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달리 비상장·저마진·오픈소스·AGI 단일 목표를 고수하는 량원평의 경영 철학이 주목받고 있음.

미니맥스(0100.HK): 해외 IB의 긍정적 전망에 투심 회복

- 경영진 미팅 이후 Citi·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사업 전망을 제시하며 주가 랠리. 7/27 미니맥스 주가는 17.1% 상승 마감.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Citi가 동시에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860홍콩달러(현 주가 229.6홍콩달러 대비 274.6% 업사이드 여력)를 제시한 것이 투자 심리 회복의 핵심 촉매. 7/24 경영진 미팅에서 4월 ARRO이 4억달러에 달했으며 2026년 말까지 최소 10억달러 ARR 달성에 자신감을 표명. 3분기 중 2.7조 파라미터 규모의 차세대 오픈소스 모델 M3Pro 출시 계획도 공개됐으며, 이는 현존 중국 AI 모델 중 최대 규모.

알리바바(9988.HK/BABA.US): 기업용 AI 에이전트 소규모 내부 테스트 진행

- 알리바바가 신규 기업용 AI 에이전트 '치엔원반공실(Qwen Office)'를 소규모 내부 테스트로 개시. 발표회·고위 임원 공식 발언도 없이 조용히 출시한 것이 특징. QoderWork·우공·MuleRun 3개 Agent 제품을 딥 통합한 구조로, 덩딩 신임 CEO 천위썬 총괄 하에 현재 로컬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 향후 웹 버전·덩딩 내장 버전으로 순차 출시 예정.

메이탄(3690.HK): 전사 AI 에이전트 플랫폼 'CatPaw' 출시

- 7/27 전사 AI 에이전트 플랫폼 'CatPaw'를 공식 출시. 사내에 임직원 9만 명 대상 에이전트 3만 개 이상을 적용하며 배달·미용·반려동물 병원 등 실제 업무 시나리오에서 검증을 완료한 상태에서 외부 출시로 전환. CatPaw는 본지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AI 에이전트와 결합한 것이 핵심. 왕싱 CEO는 "AI를 핵심 해자 강화·새로운 가치 창출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며 AI 에이전트와 대형 모델 역량을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발언.

바이트댄스(비상장): 기업·개발자용 'Doubao 검색' 서비스 출시

- 7/28 기업·개발자용 'Doubao 검색' 서비스를 정식 출시. 전 영역 인터넷 정보에 업종 전문지식과 바이트댄스 독점 콘텐츠를 결합하였음. AI 에이전트용 신뢰 검색에 초점을 두고, 월 500회 무료 후 종량 과금.

Moonshot AI(비상장): 기업가치 350억달러까지 급등, 연내 홍콩 상장 예정

- 7/29 블룸버그에 따르면, Moonshot AI가 시리즈 F 라운드에서 35억달러를 조달해 기업가치 350억달러를 확보. 당초 목표였던 10억~20억달러를 크게 웃돈 규모로, 지난 5월 200억달러였던 밸류에이션이 약 8개월 만에 급등. 딥시크에도 투자한 국책펀드 국가AI산업투자기금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도 참여. 최근 실리콘밸리에 파장을 일으킨 Kimi K3 흥행이 배경으로, Moonshot은 프리머니 500억달러로 추가 라운드를 추진하며 연내 홍콩 상장을 준비 중. 3년 전 3억달러였던 몸값이 35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진영의 부상이 자본시장 평가로 확인되는 모습.
- 7/27 Kimi K3 모델 가중치를 허깅페이스에 공개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2.8조 파라미터로 현재 공개된 가중치 모델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Kimi K3 출시 이후 일평균 매출이 최소 6배 급증했다. 한편 7월 글로벌 LLM 호출량 상위 TOP 5를 중국 기업들이 석권했으며 Kimi K3 가중치 오픈소스 공개로 경쟁사 주가가 동반 급락. 7/28 Z.ai 주가는 홍콩 거래에서 최대 30% 하락했으며 미니맥스는 최대 16% 하락, 미니맥스(0100.HK), Z.ai(2513.HK) 14.1%, 18.7% 하락 마감.
- 7/29 SCMP에 따르면 Moonshot AI가 'Kimi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개시. Kimi를 실제로 쓰는 창업자·개발자·콘텐츠 크리에이터·대학생 중 각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이용자를 모집해, Kimi의 글로벌 사용자 저변을 넓히려는 취지. 최근 미국 최상위권 모델에 근접한 성능으로 주목받은 Kimi K3의 관심을 실제 개발자·창작자 채택으로 전환하려는 행보. 지원자는 11개 문항을 작성해야 하며, 선발자에게는 미공개 신모델·실험 기능 조기 접근, 모델 호출 크레딧, 제품과의 직접 소통, 공식 채널 홍보 기회 등을 제공.

반도체

반도체: 미 상원 의원, 애플에 중국 메모리 구매 계획 철회 압박

- 7/30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이 팀 쿡 애플 CEO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메모리 기업 CXMT·양쯔메모리(YMTC)로부터의 반도체 구매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 해당 부품이 중국 내수용 제품에만 쓰이더라도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 최고 가치 전자기업인 애플이 미국이 '중국 군수기업'으로 지정한 회사에 핵심 부품을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 두 기업 모두 최근 갱신된 미 국방부의 중국 군 연계 기업 명단에 포함. 애플은 AI 수요 확대에 촉발된 세계적 메모리 공급난·가격 급등 속에 두 회사로부터의 칩 조달을 협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6월 맥·아이패드·비전프로 등 전 제품 가격 인상 단행),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의 승인을 구해온 상황.

반도체 장비: 중국이 자체 개발한 28nm급 DUV 노광장비 양산 단계 진입

- 7/27 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익명 기업이 Immersion DUV 노광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연내 CXMT, SMIC, 화흥반도체 등 국내 칩 제조사에 납품할 예정. 미국이 중국의 서방 DUV 장비 구매·유지보수를 차단하려는 MATCH 법안에 대한 중국의 효과적인 반격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화가 결정적 단계에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 해당 장비는 28nm급 DUV로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일본 수입에 의존하나 대부분 부품은 국산화 완료되었다고 설명. 생산 계획은 2026년 5대·2027년 20대 규모.
- 한편 국산 DUV 호재에도 불구하고 A주 반도체 장비주는 약세를 시현. 중국 현지의 주요 시각은 3가지. 1) "북방화창·AMEC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미 2028년 예상 실적까지 선반영됐다"는 의견이 다수. 2) 고객 검증, 발주, 설치, 검수, 매출로 인식의 긴 실적 전환으로의 과정이 존재해 "업황 호조"가 "즉각적인 이익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장이 재인식하기 시작. 3) 국산 Immersion DUV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기존 국산 장비(식각·증착·세정) 기업들의 수요 대체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

알리바바(9988.HK/BABA.US): 자체 칩 T-Head '전무 M890' 슈퍼노드 Kimi K3 적용 완료

- 7/28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알리바바클라우드의 자체 칩 T-Head '전무 M890' 슈퍼노드가 Moonshot AI의 Kimi K3(총 2.8조 파라미터, 100만 토큰 컨텍스트) 공개와 동시에 적용을 완료. 국산 칩으로 근 3조 파라미터급 모델을 구동한 첫 사례. 앞서 7/23에는 동 슈퍼노드가 알리바바 자체 Qwen3.8(2.4조 파라미터)을 바이런 플랫폼에 올려 추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발표. M890은 알리바바 자회사 핑터우거가 설계한 훈련·추론 겸용 칩으로,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고 구동했다는 점에 주목받는 모습.

화웨이(비상장): 창업자 런정페이, Tao(τ)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 공개 지지

- 7/22 런정페이 창업자가 사내 인트라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신간 서문을 통해 Tao(τ)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하며 주목. "T정율은 화웨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명시하며 "다른 제조사는 여러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화웨이는 생존을 위해 수만 명의 직원이 6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하나의 길을 개척했다. 어떤 것을 전복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

MetaX(688802.SH): 연내 홍콩 상장을 목표로 상장 신청서 제출

- 7/24 SCMP에 따르면 MetaX가 연내 홍콩 상장을 목표로 홍콩거래소에 비밀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화타이인터내셔널을 주관사로 선정. 2020년 전직 AMD 출신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상하이 소재 GPGPU 펌프로, 추론용 MetaX N, 범용 컴퓨팅용 MetaX C, 그래픽 렌더링용 MetaX G 등 풀스택 GPU 칩과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

CXMT(688825.SH): 상장 첫날 466% 급등

- 7/27 커창반 상장 첫날 공모가(8.66위안) 대비 최대 +535% 급등하며 장중 최고 55.03위안을 기록, 종가 기준 +466% 급등한 49위안으로 마감. 시총 3.28조 위안(약 4,846억달러)으로 인텔(약 4,640억달러)을 상회하며 A주 시총 1위에 등극하는 역사적 데뷔를 기록.
- 노무라는 상장 당일 매수(목표가 116위안) 의견을 제시하며 "에이전틱 AI에 대한 강한 수요가 2030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수요를 7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 CXMT의 글로벌 DRAM 시장점유율이 현재 약 10%에서 2028년 말까지 1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월간 생산 캐파가 2025년 말 28만장(허페이·베이징)에서 2026년 말 35만장, 2028년 말 55만장(상하이 신규 라인 포함)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
- 과창판 대표지수 STAR50 편입 일정이 시장 관심사로 부상. 편입·편출 명단 발표는 8월 말, 패시브 자금 증가 리밸런싱은 9월 11일, 변경 지수 적용일은 9월 14일로 예상. CXMT는 과창판 일평균 시가총액 상위 3위이자 상장 1개월 초과 요건을 충족해, 지수 전문가위원회 특별 승인을 통한 조기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다만 상장 초기 높은 주가 변동성과 제한된 유통물량(유통가능 비율 6.7%)에도 위원회가 특별 편입을 승인할지가 관건. 9월 편입이 불발되면 12월 14일 정기 조정에서 편입될 전망.

기가디바이스(603986.SH): 주이밍 회장, A주 자사주 매입 제안

- 7/29 기가디바이스 주이밍 회장이 10억~20억위안 규모 A주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며, 매입 물량은 전량 소각해 등록자본을 축소할 계획. 주이밍 회장은 향후 12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26년 12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최소 10억위안어치를 추가 매수하겠다고 밝힘.

AI 인프라

중지쉬창(300308.SZ/3308.HK): 홍콩 상장 발행가 주당 980홍콩달러로 확정

- 7/28 공시를 통해 H주 발행가를 주당 980홍콩달러로 확정. 기초 발행 5,450만주 기준 총 모집 규모 약 534억 홍콩달러로 2026년 홍콩 IPO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7/30 홍콩거래소 메인보드에 정식 상장 예정(거래 단위 50주). 발행가 980홍콩달러는 공모가 상단(1,010홍콩달러) 대비 약 3% 할인된 수준으로, 초과 청약 상황에서도 상장 후 주가 안정을 위해 투자자에게 일정 할인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 상장 첫날부터 홍콩거래소가 주간·월간 옵션·파생증권을 동시 출시하고 공매도 지정 종목에 편입하며, 이는 ICBC·AIA·알리바바에 이어 역대 4번째 사례로 주목.
- 7/28 중지쉬창 회장 겸 총재가 40억~8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제안. 매입한 주식은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성과 보상에 재사용할 예정이며, 아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제안 단계. 같은 날 실적 설명회에서 '1.6T 광모듈 가격 급락' 루머를 반박했는데, 1.6T 수요는 매우 견조하고 원자재 공급이 빠듯해 대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며, 자사 1.6T 평균 판매가격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고 업계에 급격한 가격 인하나 과당경쟁은 없다고 설명. 수주 물량은 2027년까지 확보.

캠브리콘(688256.SH): 2026년 인센티브안 공개

- 7/28 캠브리콘은 2026년 성과조건부주식(RSU) 인센티브안 공개. 총 500만 주로 총 발행주식의 0.80%에 해당함. 부여가 750위안/주로 1차 400만 주·예비 100만 주, 임직원의 85.4%에 대상 945명에 부여될 예정. 실적 조건은 2026년 매출 135억위안 이상, 2026~2027년 누적 405억위안 이상, 2026~2028년 누적 1,000억위안 이상.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SH): 자사주 매입 추진 계획 공시

- 7/27 10억~2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추진 계획을 공시(매입가 최대 주당 103위안). 자사주 매입 자금은 전액 자체 조달 자금으로 충당하며 취득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현시총(1.3조위안)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가 0.1%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7/28 폭스콘산업인터넷 주가는 5.6% 하락 마감.

이차전지

이차전지: 헝가리 환경부 규제 확대, 중국 배터리 기업 증설 속도 둔화 가능성 제기

- 올해 5월 헝가리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 배터리 기업 증설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전 정권인 오르반 정부는 202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정부 집계 기준 약 260억유로(297억USD)의 해외 투자를 유치, 주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투자에 힘입어 헝가리를 유럽의 핵심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만들었음. 그러나, 환경오염·안전 문제가 총선 핵심 이슈가 되면서 새 정부는 산업보다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선회. 업계에서는 향후 헝가리 새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이 줄어들고, EU 정책 기조에 맞출 것으로 예상. 기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생산 능력 증설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7/2 헝가리 환경부는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 이번 조치는 당국이 공장 주변 관측정에서 채취한 물에서 대규모 알루미늄 오염을 확인한 뒤, 정부가 6월 말 중국 배터리 부품업체 온칩고분(Semcorp)의 생산 허가를 정지한 데 따른 것.
- CATL의 헝가리 배터리 공장 또한 영향을 받고 있음. 6/23 보도에 따르면, CATL의 데브레첸 공장은 가동이 지연되고 있음. 모듈 생산은 이미 시작됐지만 배터리 셀 생산이 아직 개시되지 않음. 현재 스페인 비토리아에서 생산 중인 벤츠의 신형 전기 밴 VLE에 탑재되는 약 115kWh 배터리팩은 당초 계획과 달리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음.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와 공급 비용은 CATL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 공장 지연의 주요 원인은 정부 인허가 지연과 헝가리 정권 교체 이후 강화된 환경 규제인 것으로 전해짐. 회사 측에 따르면 연산 40GWh 규모의 셀 공장은 이미 완공됐으나 관련 인허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CATL은 남은 인허가를 획득하면 시험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을 최대 100GWh(2025년 총 생산능력 772GWh)까지 확대할 예정. 한편 5월 초에는 공장에서 녹색 액체가 유출되면서 헝가리 환경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함. CATL은 해당 물질이 정기적인 누설 테스트에 사용하는 착색제라고 설명한 바 있음.

고선하이테크(002074.CH): PowerCo 사가운토 기가팩토리의 지분 협상 마무리 단계

- 7/28 고선하이테크는 폭스바겐과 PowerCo의 스페인 발렌시아 사가운토 기가팩토리 지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해당 공장은 2026년 12월 배터리셀 시생산을 시작할 예정. PowerCo는 폭스바겐이 BYD와 테슬라 등 전기차 경쟁업체를 따라잡고 아시아 배터리 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설립한 배터리 자회사. 보도에 따르면, 고선하이테크는 발렌시아 공장을 운영하는 합작법인(J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다만, PowerCo는 공장 경영권을 넘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7/21 고선하이테크는 연간 2만톤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프로젝트 공식 착공.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만 톤급 고순도 황화리튬 양산라인으로, 2026년 말까지 파일럿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

산업재

광섬유 산업: 중국 광섬유 기업의 미국 하이퍼스케일러향 공급 가능성은?

- 데이터센터 중심의 AI 투자 확대와 프리폼(광섬유 핵심 원재료)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광섬유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범용 G652D 프리폼 가격은 2025년 초 대비 180% 이상 상승했고, AI 데이터센터용 고밀도 광케이블에 사용되는 G657A2 프리폼 가격은 약 550% 급등.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광섬유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글로벌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8년 이후, 광섬유 산업 전체는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데이터센터용 고사양 광섬유는 높은 기술장벽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광섬유 시장은 미국 기업 Corning이 약 1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광섬(13%), 중천과기(11.3%), 형통광전(11.2%), 봉화통신(9.8%) 등 중국 업체들이 뒤를 잇고 있음.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증설도 본격화되고 있음. Corning은 기존 프리폼 생산라인이 사실상 최대 가동률에 도달한 가운데 NVIDI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광연결 제품 생산능력을 10배 확대하고, 미국 광섬유 생산능력도 50% 이상 늘릴 계획. 형통광전과 중천과기 역시 생산능력을 20% 이상 증설할 예정. 다만, 프리폼 증설은 설비 구축부터 양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향후 광섬유 산업의 핵심 성장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인 만큼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전망. 현재 장비광섬을 비롯한 중국 주요 업체들은 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광섬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에는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는 기술 경쟁력보다는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 중국 3위 업체인 형통광전은 2021년부터, 봉화통신은 2020년부터 미국 Entity List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천과기의 해저케이블 자회사 역시 2021년부터 Entity List 대상. 장비광섬은 현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보안 정책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에 직접 대규모 공급할 가능성은 제한적. 단, 미국 내 광섬유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산 광섬유의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양광전력(300274.CH): 예상보다 이른 미국 규제 발표,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

- 7/28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신규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발표, 이로 인해 양광전력 주가는 이틀 간 -8% 하락. 이번 조치는 시장 예상 보다 이른 시점에 시행. 다만, 이미 F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판매에 제한이 없고, 규제 대상도 신규 모델에 국한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양광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미국 시장은 양광전력의 2027년 예상 순이익의 약 20% 대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한편 미국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미국 업체의 점유율은 약 7%에 불과해 단기간 내 현지 업체가 비미국 업체의 공급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전기차

전기차: 중국 공업정보화부 신에너지차 15차5개년 계획 수립으로 추가 강세

- 7/29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산업을 위한 15차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발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힘. 이로 인해 7/29 홍콩 상장 전기차 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등. 리오토(2015.HK) +10%, 립모터 10%, 광저우자동차(2238.HK) +7%, 지리자동차(0175.HK) +6%, BYD(1211.HK) +4%, 샤오펑(9868.HK) +4% 상승.

샤오미(1810.HK): EREV SUV인 Sky Nomad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 7/30 샤오미는 첫 EREV SUV인 N90 Max와 N70 Max 공개하고 사전 판매를 시작. 정식 출시는 9월 예정이며, 현재는 Max 트림만 공개됐고 Pro 및 기본형은 추후 출시 예정. 판매가격은 N90 Max 29.99만위안, N70 Max 25.99만위안으로 책정. N90 Max는 테슬라 Model Y L(33.9만위안) 대비 약 4만위안 낮은 가격으로 출시.
- 이번 행사에서는 Kunlun 플랫폼, Kunlun 초장거리 주행 시스템, Kunlun 전영역 안전 기술도 처음 공개됨. Sky Nomad는 샤오미의 2026년 핵심 신차. CEO인 레이쥔은 SU7·YU7는 운전하는 차이고, 3년 반 동안 개발한 Sky Nomad는 생활 공간을 만드는 차량이라고 설명. 샤오미는 올해 55만대 판매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량인 41만대 대비 34% 증가한 수준. 상반기 판매는 18.5만대로 연간 목표의 약 34%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월평균 약 6만대 판매가 필요한 상황.
- 샤오미 SkyNomad 모델의 HAD 보조 주행 시스템도 함께 공개. 이번 시리즈는 모든 모델에 Xiaomi HAD와 Xiaomi XLA 인지형 대규모 AI 모델을 기본 탑재했으며, 샤오미는 이를 완전한 보조주행 패키지로 소개. 센서 구성은 700TOPS 성능의 엔비디아 Thor 칩, 루프 장착 LiDAR, 4D 밀리미터파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 11개, 초음파 레이더 12개로 이루어짐. 플래그십인 N90 Max에는 인지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방 고체형(Solid-State) LiDAR가 추가.

BYD(1211.HK): 일본 전용 전기 경차 Racco 출시

- 7/28 BYD는 일본 전용 전기 경차 Racco를 출시했으며, 2026년 말까지 1만대 판매를 목표로 제시. Racco의 판매가는 195만엔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 경차인 닛산 Sakura보다 낮게 책정됐으나, 정부 보조금 적용 후에는 Sakura의 실구매 가격이 여전히 더 저렴. Racco는 최대 32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슬라이딩 뒷문을 적용한 것이 특징. BYD는 2023년 일본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으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번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 회복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중국 신규 로봇 수입 금지

- 7/28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신규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발표. 이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규 로봇 및 인버터 모델에만 적용되나 FCC는 이미 판매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 취소 권한을 갖고 있음. 금번 제재는 중국발 공급망 교란, 데이터 탈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 AI 공급망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약 20%를 보유한 유니트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유니트리는 최근 미 국방부의 중국 군 관련 기업 목록에도 포함된 바 있음. 인버터 분야에서는 양광전력(sungrow)과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규제 영향권에 포함.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직후 주문 1만대 확보

- 7/28 CCTV에 따르면, 지난달 말 휴머노이드 신제품을 출시한 한 중국 로봇 기업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1만대 이상의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해당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개념 검증에서 대량 납품 단계로 전환되고 있고,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중국 공업정보화부(MIT)에 따르면 올해 1~5월 로봇 산업의 규모 이상 기업 매출은 900억위안을 돌파했으며, YoY +2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상회. 로봇 산업은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으며, 모터·감속기·센서·베어링 등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

유니트리(비상장):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최대 3배 증가, 미국 판매 리스크 경고

- 7/28 유니트리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Irving Chen은 2026년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최소 2배, 최대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니트리의 연간 생산능력은 최대 3만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해외에서 로봇을 조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유니트리는 IPO 조달 자금을 활용해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2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
- 7/30 유니트리는 다음 달 상하이 IPO를 앞두고 미국 판매 리스크를 경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28 외국산 첨단 로봇을 Covered List에 추가하면서 미국 판매에 필요한 장비 인증 취득을 제한. 유니트리는 상장예비심사 자료에서 현재 판매 중인 휴머노이드 및 사족보행 로봇은 FCC 인증을 획득했지만, 향후 출시되는 신모델은 미국 시장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기존 FCC 인증이 취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제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2025년 유니트리의 해외 매출 비중은 44%였으며, 최근 3년간 미국 매출 비중은 각각 18%, 20%, 13%를 기록.

BYD(1211.HK): 8월 첫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할 것

- 7/27 BYD는 자사의 오프라인 과학교육 공간인 Di Space에서 8월 첫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BYD는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Embodied AI) 제품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 향후 모든 BYD 매장에 2~3대의 로봇을 배치해 차량 소개 및 시연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로봇 사업 진출도 본격화되는 모습. 체리가 육성한 Aimoga는 이미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를 시작했으며, SAIC-GM은 배터리 조립라인에 바퀴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 샤오펑은 올해 말까지 Iron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

바이두(BIDU.US): Apollo Go 영국 도로주행 테스트 시작, 2027년부터 서비스 개시

- 7/28 바이두의 로보택시 플랫폼 Apollo Go는 유럽 모빌리티 플랫폼 Freenow(Lyft 자회사)와 협력해 영국 런던 브렌트 지역에서 6세대 자율주행차 RT6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시작. 초기 테스트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며 규제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일반 승객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체결한 바이두-리프트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바이두는 RT6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Freenow는 현지 운영을 담당.
- 한편 Apollo Go는 지난 7월 23일 홍콩에서 우한들 시장 최초의 완전 무인 도로주행 허가를 획득, 7/27부터 공항섬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 이는 홍콩 최초의 안전요원 미탑승 공공도로 시험운행. 2026년 4월 기준, Apollo Go의 누적 서비스 건수는 2,200만 건을 돌파, 1Q26 완전 무인 운행은 320만건으로 YoY+120% 증가, 5월 기준 서비스 지역은 전 세계 27개 도시, 누적 자율주행 거리는 3.3억km(완전 무인 2.2억km)를 기록

자율주행: 중국 자율주행 기업 신규 테스트 허가 발급 현황

- 7/27 지리홀딩 산하 차량 호출 자회사인 차오차오는 완전 무인(안전요원X) 로보택시 도로 테스트 시작. 이번 테스트는 항저우의 실제 도심 도로에서 진행되며, 거점 기반 배차 방식을 적용해 제한된 규모의 통제된 환경에서 완전 무인 운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 현재 항저우에서 약 100대 규모의 로보택시 차량을 운영 중. 또한, 차오차오는 자체 개발한 로보택시 전용 차량 EvaCab도 공개. 이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2030년까지 운행 규모를 1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 7/29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는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으로부터 독일 전역의 도시도로에서 L4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 중국 기업 최초로 독일 전국 단위 L4 테스트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이번 허가도 도시별 별도 시험 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됨. 모멘타는 우버와 협력해 독일 뮌헨을 유럽 최초의 로보택시 서비스 도시로 만들 계획. 모멘타는 7/8 홍콩 증시에 상장해 약 68억HKD를 조달했으며, 공모 자금의 약 20%를 로보택시 사업 상용화에 투입할 예정. 회사는 수년간 독일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해왔으며,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월드모델(World Model) 기반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 로보택시, 로보트럭, 로보밴, 피지컬 AI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이번 주에는 쉐저우에서 로보밴 배송 서비스도 개시했다고 발표.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510.5	24.7	65.5	399.8	61.6	8,072.3	71.9	42,666.9	-	-
기가디바이스(603986.CH)	(18.8)	33.8	36.9	130.6	29.9	425.0	32.3	419.3	44.9	2026-08-24
캠브리콘(688256.CH)	(14.9)	104.0	38.1	178.0	85.5	189.8	90.4	205.8	(2.3)	2026-08-07
해광정보(688041.CH)	(13.0)	138.7	17.8	56.0	46.5	81.9	65.1	80.8	0.0	2026-08-19
비렌테크(6082.HK)	(23.5)	-	2.3	129.0	252.6	적지	흑자	적지	0.1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33.0)	-	(12.6)	176.9	128.5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11.7)	63.1	17.5	28.4	28.7	38.5	45.3	39.5	(1.3)	2026-08-25
AMEC(688012.CH)	(10.8)	86.4	13.5	34.8	35.9	66.1	42.8	131.5	3.9	2026-08-19
SMIC(0981.HK)	(13.1)	59.4	4.9	23.5	18.6	53.9	42.4	51.2	0.0	2026-08-13
JCET(600584.CH)	(22.2)	50.7	7.4	13.1	15.1	48.4	39.6	55.0	0.0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15.8)	64.6	21.9	37.0	45.9	61.2	50.5	62.9	0.5	2026-08-31
빅토리아언트(300476.CH)	(21.6)	19.9	27.4	69.8	75.9	105.0	82.5	79.9	(2.3)	2026-08-26
중지쉬창(300308.CH)	(17.4)	33.1	63.4	161.3	77.4	191.4	83.0	166.4	0.0	2026-08-2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10.7)	18.2	31.1	60.4	33.7	71.3	33.0	69.4	0.0	2026-08-11
즈푸AI(2513.HK)	(30.3)	-	10.4	462.7	199.2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19
알리바바(BABA.US)	3.7	18.1	8.8	9.7	12.0	(11.6)	40.0	110.1	(0.2)	2026-08-28
텐센트(0700.HK)	8.6	13.5	19.2	10.0	9.5	6.2	9.8	26.9	0.2	2026-08-12
바이두(BIDU.US)	2.0	14.4	5.3	0.0	7.0	143.5	20.9	11.1	(1.0)	2026-08-20
레노버(0992.HK)	(10.7)	14.2	30.0	13.9	12.6	28.2	30.1	29.3	2.7	2026-08-13
샤오미(1810.HK)	16.2	23.6	9.9	4.6	17.9	(33.6)	34.9	(8.6)	(0.1)	2026-08-18
유비테크(9880.HK)	(1.2)	-	(4.6)	92.2	51.3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31
BYD(1211.HK)	6.9	18.6	14.8	13.6	9.8	22.1	27.7	30.3	0.0	2026-08-14
CATL(300750.CH/3750.HK)	4.9	19.4	24.6	46.4	21.8	32.8	24.3	39.3	(0.8)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8.6)	14.4	26.4	14.3	19.4	7.7	24.0	16.3	(0.5)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4.2	22.3	17.0	32.3	26.8	59.8	38.8	52.1	0.0	2026-08-28
허사이트크(HSAI.US)	13.4	28.5	6.4	43.8	40.1	24.7	65.2	31.5	0.8	2026-08-18
중천과기(600522.CH)	(11.8)	14.7	16.7	23.3	14.8	154.2	42.7	124.8	(22.3)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5.3)	29.0	23.5	31.7	29.2	34.0	37.0	33.4	0.0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2.6)	18.0	10.0	10.3	8.4	35.6	31.9	26.2	0.0	2026-08-28
평균	9.4	39.9	19.1	79.6	48.8	396.3	44.3	78.5	0.8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7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